

최근의 산업경제동향

이 규 철

(중소기업중앙회부산지회 지원과장)

一. 概 觀

1. 最近 經濟動向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산업경제동향」을 토대로 최근의 경제동향과 각 부문별 동향 및 그에 대한 評價와 展望 등을 요약·정리해 보고자 한다.

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95년 3/4분기중 9.9%의 매우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同年 1/4~3/4분기의 평균 9.8%보다 0.1% 높은 성장률이다.

산업생산은 95. 12월에 6.9%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4/4분기에 들어서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重化學工業(10.1%)과 輕工業(-3.9%)의 部門間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96년 1월중 日本엔貨 약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의 전반적으로 고른 신장세에 힘입어 30.5%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설날 특수에 대비한 농수산물 및 동절기 한파에 따른 原油·石油類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35.2% 증가하여 美貨 19억2천만불(以下 불, 달러는 美貨表示임)의 수입초과를 보였다.

소비자物價와 生産者物價는 96년 1월에 일부 公共料金の 引上과 국제원유가의 일시적 급등 및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1월중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

다 비교적 높았던 例年の 경우에 비추어 볼때 안정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통화(M2)증가율은 96년 1월중 12.5%로 95년 1월의 19.6%증가율에 비해 7.1%p 낮아졌고 會社債수익률 및 콜金利 등 長·短期金利도 원활한 市中 자금사정을 반영하고 있어 안정적 추세에 있다.

日本엔貨는 미국경제의 好調와 日本경제의 회복지연 등을 예상한 국제투자자금의 移動으로 달러貨強勢 및 엔貨弱勢를 보이고 있으며 원貨의 對달러 환율은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강세 영향으로 1弗당 780원대 까지 오른 反面, 원貨의 對엔貨 환율도 730원대를 등락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생산은 95년 1/4분기 11.6%, 2/4분기 10.7%, 3/4분기 10.4%, 4/4분기 6.6%로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95년 12월중의 중소기업생산이 4.7% 증가에 머물러 95년 한해의 연간 증가율인 9.6%보다도 4.9%p나 낮은 점이다. 다만, 12월중 不渡率은 0.18%로 前月(11월)에 비해 다소 下落하였고 95년의 연평균 0.2%보다도 낮아졌다.

二. 部門別 動向

1. 經濟成長

95. 3/4분기중 우리 經濟는 수출과 설비투자

의 높은 신장세와 건설투자 및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2/4분기의 9.7%에 이어 9.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농업·어업의 신장률 감소를 除外하고는 제조업의 11.6%, 서비스업의 11.0%, 건설업의 11.6% 등의 높은 증가율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수출(31.3%)과 설비투자(21.1%)의 높은 신장세와 함께 건설투자(12.3%)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표 1 > SOC

	2/4 ⇒ 3/4	비 고
민간소비	8.0% ⇒ 8.0%	내구소비재와 해외여행 지출이 다소 증가
설비투자	19.0% ⇒ 21.1%	기계류투자는 둔화, 운송장비투자는 증가
건설투자	8.3% ⇒ 12.3%	공장, 사무실, SOC 건설등 호조
상품수출	25.0% ⇒ 31.3%	엔화강세와 수출공급능력확대로 신장세
상품수입	25.5% ⇒ 25.0%	국내경기활황으로 증가세 지속

자료 :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

Ⅱ. 生産動向

1. 生産

95. 1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前年 同月對比 6.9%로 前月の 7.9% 증가율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95년 연평균 11.7%의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경공업부분이 -3.9%로 감소한데다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전기, 기계, 비금속광물, 석유정제를 中心으로 內需가 不振하고, 기계장비의 수출이 감소한데 基因한다.

95. 12월중 주요 업종별 前年 同月對比 증감내용을 보면 컴퓨터 등 사무회계용기기(16.3%),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6.1%), 인쇄출판(4.6), 기타 운송장비(0.9%), 자동차(0.7%) 등이 증가한 反面, 가죽 및 신발(-10.5%), 의복 및 모피(-7.1%), 석유정제(-5.4%), 가구 및 기타(-5.3%), 음식료품(-2.2%)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95. 12월중 제

조업 평균 가동률은 80.7%로 前月の 81.8%보다는 다소 감소하였고, 생산능력은 前年 同月보다 8.2% 증가하였다.

< 표 2 > 산업생산증감률 추이(전년동기비, %)

	94	95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94,12월)
산업생산	11.1	11.7	14.1	12.2	13.1	8.2	9.7	7.9	6.9(12.1)
중 공 업	13.9	15.6	17.8	16.1	18.2	11.1	12.9	10.2	10.1(15.0)
경 공 업	3.1	0.7	3.8	1.2	-0.3	-1.8	-0.3	-0.6	-3.9(4.6)
평균가동률	82.7	82.3	83.5	82.4	82.1	81.1	80.9	81.8	80.7(85.4)
생산능력	3.5	9.2	9.1	9.3	9.5	8.8	9.6	8.6	8.2(6.5)

자료 :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

2. 出荷 및 在庫

95. 12월중 出荷는 전년 동월비 7.2%증가하고 95년 연간으로는 12.4% 증가하였는데, 내수용 5.1%증가에 比하여 輸出用은 13.2%로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95. 12월중 在庫는 전년 同月比 15.4% 증가하였는데, 이는 95년 한해의 연간 15.4%증가와 같은 증가율로서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기계장비 등의 수출증가세 둔화와 철강의 내수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Ⅲ. 消費動向

95. 3/4분기중 민간소비는 8.0%로 음식료품 및 어패류의 소비감소와 非耐久材에 對한 支出 증가세의 둔화에도 不拘하고 PC 等 耐久材와 승용차 운영비 등 準耐久材에 對한 支出이 꾸준히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95. 12월중의 도소매판매는 前年 同月比 8.8% 증가하여 前月の 6.7%에 比해 증가폭이 크게 늘어 났는데, 이는 소매부문의 승용차, 가정용기기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백화점 판매량이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다.

95. 12월중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前年 同月比 8.5%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형·중형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소비재가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3〉 소비 동향 추이(전년동기비, %)

	94	95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94.12월)
도소매판매	8.0	7.7	8.0	8.0	7.1	7.6	7.3	6.7	8.8(6.6)
도 매	9.8	7.0	8.2	7.0	6.6	6.3	8.3	5.9	5.0(6.6)
소 매	6.1	8.3	7.8	8.9	7.4	8.9	6.1	7.2	12.5(6.3)
내수용소비재출하	9.2	7.2	12.4	6.4	4.3	6.1	3.2	6.8	8.5(4.6)
내구소비재	12.3	10.2	17.3	5.0	10.1	9.3	3.6	4.6	20.4(2.8)
비내구 소비재	7.7	5.6	10.0	7.1	1.4	4.4	3.0	7.9	2.6(5.5)

자료 :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

IV. 投資動向

1. 設備投資

95. 3/4분기중 설비투자는 21.1%로서 기계류에 대한 투자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증가로 2/4분기의 19.0%보다는 다소 상승하였다.

이중 기계류투자는 20.4%로 섬유기계 및 화학기계등 특수산업용 기계에 대한 투자의 증가세둔화 때문에 전분기보다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며, 운송장비투자는 23.1%로 이는 자동차에 대한 투자증가와 선박에 대한 투자가 수출입 물동량증가로 이어지면서 해운경기의 호조와 함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월중 국내 기계受注는 前年 同月比 11.4% 감소하였으나, 95년 연간으로는 15.8% 증가하였다. 이는 민간제조업이 13.8% 증가한데 비하여 민간비제조업은 12.7% 감소하였고, 公共部門도 94년의 발전설비 發注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相對的 영향으로 44.8%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建設投資

95. 3/4분기중 우리나라 건설 투자는 1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장, 사무실 등 非住居用 건물과 주거용 건물건축이 크게 늘어난데다 공항·항만시설, 전력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에 따른 관련 투자가 호조를 보인것에 기인한다.

95. 12월중 국내 건설수주는 前年 同月比 12.5%증가하고 95년 연간으로는 19.8%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 비제조부문의 주택, 사무실 등의 건축이 부진한 반면, 민간 제조부문의 공장·창고 등의 건축과 公共部門의 도로·교량 등 土木工事의 발주가 다소 호조를 보인 때문이다.

V. 國際收支動向

1. 國際收支一般

95. 11월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흑자 반전에 힘입어 0.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95년 한해에 있어 月中으로는 가장 적은 규모의 적자(95. 1~11월까지의 82.4억달러적자)와 95. 11월중 무역수지 수입증가세의 둔화로 95년중 처음 기록한 1.9억달러의 흑자(95. 1~11월간 48.8억달러 적자)에 기인한다.

95. 11월중 무역외수지는 2.1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1~11월간의 무역외수지는 28.8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무역외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반도체 관련 로얄티支給 등으로 기타 用役收支가 적자로 돌아서고 해외운항 경비지급이 늘어나 기타 운수수지도 前月에 이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데 기인하고 있다. 95.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外換保有庫는 前月보다 10.5억달러 증가한 332.2억달러로 94년말의 256.7억달러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輸出入動向

우리나라의 96. 1월중 수출(통관기준)은 前年 同月對比 30.5% 증가한 10,088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95. 8월이후 지속적인 엔貨 약세로 인한 相對的인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品目別·地域別 수출이 모두 고르게 증가한 때문이다.

한편, 96. 1월중 수입은 前年 同月對比 35.2% 증가한 12,01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95. 1월중 18.0%의 낮은 증가율에 따른 상대적 요인과 異例的인 항공기 수입의 증가(95. 1월중 0.8억달러→96. 1월 3.6억달러), 동절기한파에 따른 원유·석유류의 수입증가(95. 1월중 10.8억달러) 및 설날 특수에 대비한 육류·수산물·의류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 난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96. 1월중 무역수지는 <표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24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96년도의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표 4> 96년 1월중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96.1	95.1
수출	10,088	7,730
(증가율)	(30.5)	(27.4)
수입	12,012	8,884
(증가율)	(35.2)	(18.0)
수출입차	△1,924	△1,154
L/G내도	3,211	3,191
(증가율)	(0.6)	(19.3)
I/L발급	7,036	5,730
(증가율)	(22.7)	(76.1)

자료 :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

1.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임

2. ()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임

3. 96.1월중 L/C 내도 및 I/L발급액은 1~20일 기간중 실적임

VI. 物價 및 原資材價格動向

1. 物價動向

96년 1월중 생산자물가는 농수산물과 석유

류제품의 가격인상으로 前年 同月對比 3.5%, 前月對比로는 0.9%, 前年度末 對比 0.9% 상승하였고 工產品은 前年 同月對比 3.9%, 前月對比 0.5%, 前年度末 對比 0.5%로 각각 상승하였다. 96년 1월중 소비자물가는 채소류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상승으로 前年 同月對比 5.1%, 前月對比 0.9%, 前年度末 對比 0.9% 상승하였으며, 공산품(가공식품 除外)은 前年 同月對比 2.7%, 前月對比 0.5%, 前年度末 對比 0.5%의 상승을 보인다.

2. 國際原資材 輸入價格動向

96. 1월중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오퍼가격지수 기준)은 前年 同月對比 4.3%, 前月對比 1.7%가 하락하였는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른 비철금속류와 유기·무기원료가격의 급락 및 철강재 시세의 하락으로 2개월간의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반전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의 상승품목과 하락품목을 96년

<표 5> 주요 상승 품목

원 자 재 명	상승률(%)		상 승 요 인
	비전월	비1년전	
벤젠	12.0	△15.2	미국내 수요 회복
미 송	8.0	2.2	일본 재고 소진
메탄올	6.7	△72.4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폭등
스티렌모노머	6.0	△48.8	미국시장 수요 회복, 경기보수
은	5.8	13.9	원유가 상승 및 투자 활발
프로판	5.1	7.9	동절기 수요량 증가

주요 하락 품목

원 자 재 명	하락률(%)		하 락 요 인
	비전월	비1년전	
화학필프	△33.0	△15.9	필프 수요 급감
스텐레스핫코일	△19.1	△13.4	핫코일 및 니켈 가격 하락
팜올레인	△11.4	△22.0	중국·인도의 구매 감소
전기동	△10.6	△13.2	미국·유럽의 경기 후퇴
우지	△9.5	△27.1	중국·인도의 구매 감소
등유	△5.7	28.2	원유가 상승에 연동
연피	△5.2	9.2	—
천연 고무	△4.7	△15.0	중국의 구매 부진 및 증산기

자료 :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

1월의 가격에비추어 전월대비 및 전년대비를 살펴보면 <표5>와 같다.

VII. 雇傭動向

95. 12월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0,586천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년 同月보다 2.5%(505,000명)증가한 숫자로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0.3%p 증가한 60.8%에 이르고 95년 연간 경제활동인구는前年(94년)보다 2.3%(471,000명) 증가한 20,797천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前年보다 0.3%p 증가한 62.0%에 이르고 있다.

95. 12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보다 2.8% 증가한 554,000명이며 95년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540,000명 늘어난 20,377천명으로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농림어업(-5.8%), 광공업(-0.8%), 제조업(-0.5%)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5.7%)은 증가하였다.

또한, 12월중 失業率은 전월과 같은 1.8%로 계절조정 실업률도 1.9%를 기록하여 전월과 같은 수준이며, 95년 연간 실업률도 2.0%에 머물고 있다.

VIII. 通貨 및 金利動向

96년 1월중 총통화(M2)의 평균잔액 증가율은 12.5%로 전년 12월의 13.7%보다는 크게 하락한 것이고 다만 末期기준으로는 10.1%증가한 것인데 이는 95년 1월의 통화수위가 설(1.31) 자금수요로 매우 높았고 또 금년 1월중 정부 및 해외부문의 통화환수규모가 예상외로 확대된데 기인한다. 그러나 연간 M2평균증가율은 90년의 21.2%, 91년 18.6%, 92년 18.4%, 93년 18.6%, 94년 15.6%, 95년의 15.5% 등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6년 1월중 市中자금사정은 우성건설(주)의 不渡 및 거액의 세금납부 자금수요 등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편이며, 따라서 長·短期 시장금리도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콜금리도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호조등을 반영하여 1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회사채(3년만기)유통수익률은 1월중 순발행계획 규모가 史上 최대인 2조원에 달하였음에도 上半月中에는 실제발행규모가 크지 않았고 기관투자자의 꾸준한 買受세에 힘입어 前月末과 같은 11.9%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1월16일 이후 발행물량의 대폭 증가예상과 (주)우성건설의 부도여파로 오름세를 보여 1월19일 한때 12.2%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그후 시장심리가 안정되면서 月末에는 12.04%로 하락하였다.

IX. 中小企業動向

1. 生産

95년 12월중의 중소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4.7%증가를 보였는데, 95년 연간으로는 9.6%증가한 것이다.

중화학부문은 8.0%증가에 그쳐 10월이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자동차업종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동안 成長을 주도해 왔던 기계장비·전기업종의 증가세가 한자리수로 둔화하였고 경공업부문은 1.3%증가에 그쳐 전월(3.1%)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操業

95. 12월중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중소기업 중 가동률 80%이상인 기업의 比重)은 85.0%로 前月の 84.8%에 비해 0.2%p상승하였고 95. 12월중 휴업중인 업체비율은 1.52%로 전월보다 0.01%p 상승하였으며, 폐업체수 비율은 0.06%로 前月對比 0.06%p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을 年度別로 보면 92년의 83.7%, 93년의 83.4%, 94년 84.9%, 95년 84.6%이고, 휴업률은 92년의 1.28%, 93년 1.23%, 94년 1.07%, 95년 1.31%이

며, 폐업률은 92년의 0.12%, 93년 0.09%, 94년의 0.10%, 95년 0.09%로 각각 기록되었다.

3. 不 渡

95년 12월중 전국 어음부도율은 전월(0.21%)보다 0.03%p감소한 0.18%이며, 95년의 연간 전국 어음부도율은 0.20%를 나타내고 있다.

95년 12월중 부도업체수는 前月の 1,308개보다 40개업체 감소한 1,268개업체로서 부도업체중 제조업체 비율은 26.7%로 前月の 26.9%보다는 0.2%p감소하였으며, 95년 연간 부도업체수는 13,992개이다. 업종별 부도업체 비중은 제조업이 25.4%, 건설업이 12.5%, 서비스업은 55.9나 되고 있다. 한편 95. 12월중 창업업체수는 1,497개로 前月(1308개)보다 189개

〈 표 6 〉 산업생산증감율 추이(전년동기비, %)

	92	93	94	95	95.1/4	2/4	3/4	4/4	11월	12월
○ 부 도 율	0.12	0.13	0.17	0.20	0.20	0.21	0.20	0.20	0.21	0.18
(조정부도율)	0.12	0.12	0.15	0.17	0.17	0.17	0.17	0.16	0.17	0.14
○ 부도업체수	10,769	9,502	11,255	13,992	3,081	3,478	3,674	3,759	1,308	1,268
(월평균)	(897)	(792)	(938)	(1,166)	(1,027)	(1,159)	(1,225)	(1,253)		
- 개 인	7,055	6,100	6,752	7,962	1,789	2,012	2,071	2,089	732	708
- 법 인	3,714	3,402	4,503	6,031	1,292	1,466	1,603	1,670	576	560
○ 부도업체중 업종별비중										
- 제 조 업	30.3	30.0	27.8	25.4	25.9	23.9	25.6	26.1	26.9	26.7
- 건 설 업	10.5	11.9	10.7	12.5	12.0	11.8	12.9	13.1	12.9	13.1
- 서 비 스	—	-	59.1	55.9	37.5	40.2	59.1	58.5	57.5	58.3
○ 창업업체수	13,702	11,998	16,723	17,245	4,359	4,275	4,483	4,128	1,255	1,497
(월평균)	(1,142)	(1,000)	(1,394)	(1,437)	(1,453)	(1,425)	(1,494)	(1,376)		
창업업체수	1.27	1.26	1.49	1.23	1.42	1.23	1.22	1.10	1.04	1.18
부도업체수										
(법인기준)	(3.69)	(3.53)	(3.71)	(2.86)	(3.37)	(2.92)	(2.73)	(2.47)	(2.18)	(2.67)

* 조정부도율이란 전지결제액을 감안한 어음부도율을 의미

자료: 통산산업부 기획관리실

업체가 증가하여 法人기준으로 볼때 부도업체수의 2.7배에 이른다.

三. 評價와 展望

1. 現 景氣局面에 對한 評價

95년 3/4분기 이후 산업생산의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최근 경기하강 속도에 대한 評價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산, 출하, 설비투자 등 일부지표의 둔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경기가 급랭(急冷)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

기도 하나, 수출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내수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점 등을 들어 아직 급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것이 압도적이다.

산업생산증가율 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경제에 活力을 불어넣는 主要因중의 하나인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對 內外的인 경제요건도 과거 경기 수축기에 비해 良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 연착륙 전망과 함께 일본, EU등 선진경제는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들도 높은 성장이 기대되어 우리의 수출여건은 얼마간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엔貨下落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엔貨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부문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자동차, 정보통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아직은 경기가 급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95년의 고속성장에 따른 상대적 속도감 상실과 경기양극화 심화로 부문별 局地的 경기불황의 가속 등으로 경기하강에 대한 체감속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하강을 직접 외부로 느낄 수 있는 기업인 및 일반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급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기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II. 향후 경제정책방향

지금까지 우리경제에 活力을 불어 넣었던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통화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융개혁을 內實있게 단행하여 최근의 금리하향 안정세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환, 자본자유화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자본유입 증가로 원화절상 압력이 높아 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경기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와 경제행정규제 완화에도 우선적인 정책배려가 요구된다.

작년에는 투자가 주로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에 치중하였던 만큼, 앞으로는 기술개발투자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며, 절차간소화등

단순한 규제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모든 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토지, 건설, 금융, 외환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양극화의 심화에 대비하여 경공업 부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中小企業廳의 設立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 및 기술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경기 양극화로 악화된 우리경제의 경기 대응력을 強化하기 위하여 자본재 산업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인 支援과 노력이 요망된다.

四. 맺음말

今年 한해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월총선이 실시되고 비자금 파문이 물고온 불확실성의 증폭, 민주노총의 출범 등으로 국내경제는 매우 어려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비자금 파문은 기업들의 투자욕을 감퇴시키고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임금협상 등을 둘러싼 노사의 대립이 첨예화 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으며, 총선을 전후한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 등의 물가상승이 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여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그 어느 때 보다는 환율 변동이 극심해 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리스크에도 새로운 인식과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2月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3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라면 당초 우리 무역의 적자폭은 예상 밖의 큰 폭으로 확대 될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응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